

한국영화 '황금종려상' ... "국제 위상 높아질 것"

봉준호 감독(사진)이 올해 제72회 칸국제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품에 안으면서 마침내 한국영화계 숙원이 풀렸다.



의 배우 전도연이 여우주연상을 품에 안았고 2009년 '박쥐' (박찬욱)는 심사위원상, 2010년 '시' (이창동)는 각본상을 각각 받았다.

봉 감독은 이번 수상으로 세계 거장 감독 대열에 오르게 됐다. 켄 로치, 마이클 무어, 라스 폰 트리에, 쿠엔틴 타란티노, 로랑 캉테 등이 역대 황금종려상 수상자들이다.

칸 영화제는 베네치아, 베를린영화제와 함께 세계 3대 영화제로 꼽힌다.

한국영화는 2000년 임권택 감독의 '춘향전'으로 칸 영화제 경쟁부문에 처음 진출한 이후 19년 만에 최고상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칸 영화제에서 본상을 받은 것도 2010년 이창동 감독 '시' (각본상) 이후 9년 만이다.

영화계는 이번 수상으로 봉준호 감독이 세계적인 거장 감독으로 인정받는 것은 물론 한국영화의 국제적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영화는 그동안 칸 영화제에서 여러 차례 수상작을 냈다. 2002년 '취화선'의 임권택 감독이 감독상을, 2004년에는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가 심사위원대상을 받았다. 2007년 '밀양' (이창동 감독)

당초 베네치아영화제에 대항하기 위해 1946년 출범했으나, 지금은 3대 영화제 가운데 최고권위를 인정받는다. 프랑스 남부지방 칸에서 열린다. 칸이 개최지로 선정된 것은 맑은 하늘과 따사로운 햇볕, 쪽빛 바다 등 주변 환경이 매력적인 휴양도시라는 점이 고려됐다.

미 빌보드, 스트레이 키즈 집중 조명

미국 빌보드가 한국의 9인조 보이그룹 스트레이 키즈(Stray Kids·사진)를 집중 조명했다.



빌보드는 지난 28일 'Stray Kids Are Growing Up & Finding Their Way Through Touring & 'Clé' Album Series(스트레이 키즈는 성장 중이며 투어와 '클레' 앨범 시리즈로 스스로의 길을 개척중)'이라는 제목으로 스트레이 키즈를 소개하고 멤버들과의 인터뷰도 게재했다.

범 '클레 원 :미로(Clé 1: MIROH)'에 대해 "어린이 자 아티스트로 성장하면서 승리를 이끌어내겠다는 스트레이 키즈의 의지를 담았다."고 덧붙였다.

빌보드는 스트레이 키즈에 대해 "그룹 내 프로듀싱 팀인 쓰리라차(3RACHA)의 방찬, 한, 창빈은 자신들의 음악을 직접 작업해 메시지와 역동적인 에너지를 전한다."며 최근 미국 쇼케이스 투어에 대해 "스트레이 키즈가 얼마나 빠른 성장을 이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호평했다.

스트레이 키즈는 지난달 14일과 15일 뉴욕 '뉴저지 퍼포밍 아트 센터'부터 17일 LA '패서디나 시빅 오디토리엄', 19일 휴스턴 '리벤션 뮤직 센터'까지 총 4회에 걸쳐 단독 공연을 열고 전회 매진시키며 자신들의 파워를 증명했다.

또 "새 앨범마다 차근차근 성장세를 보였고 2019년에는 성숙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하면서 지난 3월 발매 후 빌보드 월드 앨범 차트 3위를 차지한 앨범

방탄소년단, 유엔 홈페이지 장식

방탄소년단(BTS)의 인터뷰 영상이 유엔(UN) 홈페이지 메인 화면을 장식했다.

지난 29일 유엔 홈페이지에 게재된 BTS의 영상은 그들이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청년 어젠다 '제너레이션 언리미티드' (Generationunlimited) 행사에서의 활동상을 담은 것이다. 1분 분량의 영상에서 지민은 "저희로 인해서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졌으면 하는 마음에 저희도 실천하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영상은 유튜브에도 함께 올라갔다.

BTS는 지난해 9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제너레이션 언리미티드' 행사에서 연설했다. 리더 RM은 당시 연설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 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던진 바 있다.

한편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트위터 계정 팔로워가 2천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 24일 미국 마켓워치는 "트위터측이 이같이 확인했다."면서 "K팝의 트위터 점령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이날 현재 BTS의 트위터 계정(twitter.com/bts_twt)에 등록된 팔로워 수는 2천1만5천 명을 넘어섰다. BTS의 또 다른 트위터 계정(@bts_bighit)은 팔로워 수가 1천500만 명을 웃돌고 있다.

1266호 숫자퍼즐 정답

5	6	8	4	7	9	1	2	3
7	9	2	3	5	1	4	8	6
1	3	4	6	2	8	9	7	5
3	7	6	8	9	2	5	1	4
8	4	1	5	3	7	6	9	2
9	2	5	1	6	4	8	3	7
6	5	9	7	8	3	2	4	1
2	1	3	9	4	6	7	5	8
4	8	7	2	1	5	3	6	9

종교 무관
주7일 예약상담

꽃과 나비의 궁합(宮合)

☎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오래 전의 일이다. 어느 날 필자가 50대 중년 부부의 사주를 상담을 했는데 필자가 먼저 남편의 사주를 보면서 건넨 이야기는 "타고난 팔자의 가장 큰 특징은 역마(驛馬)의 기운이 강한 팔자가 되므로 직업이 여기저기로 돌아다니는 직업이나 사업을 한다면 타고난 팔자의 큰 특징을 잘 활용하는 분야가 됩니다."라고 말을 하니 남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무역업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라고 답을 한다. 이어서 필자가 건넨 이야기는 "그런데 지금 지나고 있는 운(運)의 흐름을 볼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사업에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사모님의 건강도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부부가 서로 잠을 자는 방을 따로 써야 되는 운의 흐름입니다."라고 말을 하니 옆에서 듣고 있던 부인이 필자에게 묻는다. "아니 왜 부부(夫婦)가 각방을 써야 합니까?"라고 의아한 표정을 짓는다. 이어서 필자가 답변해 주기를 "두분의 사주와 궁합을 볼 때 서로가 매우 유정(有情)한 궁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유유히 흐르는 세월의 변화로 인해 부득이하게 서로 떨어져 지내야만 되는 흐름이 됩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꽃과 나비는 서로 간에 궁합이 좋아서 서로 가까이 지낼수록 좋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추운 겨울에는 아쉬워도 서로가 떨어져 지내야만 서로의 생명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라고 설명을 해주니까 이해하는 표정을 짓는다. 부부(夫婦)가 아무리 유정(有情)하다 하더라도 세월의 변화가 주는 굴곡의 해로움을 최대한 피하려면 운의 흐름에 따라 잠자는 방을 따로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여하튼 상담을 의뢰했던 부부에게 다가오는 운(運)의 흐름에 따른 처세 방안을 알려 주었지만 필자의 말을 신중하게 받아들여 필자의 조언에 따를지는 본인들의 선택인 것이다.

★ 사주명리 · 풍수 · 수맥감정 전문 ★

평생사주 총운	직업, 사업, 재물	궁합, 애정	예약 필수 714.534.4645	9618 Garden Grove Blvd., #108, Garden Grove, CA 92844	정교한 사주해석 전문 청해역학학술원
상호, 이름 작명	풍수지리 출장 감정	수맥 탐사 전문			